



사회를 맡은 이강숙 교수



# 제25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이모저모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 강 숙

## Opening ceremony



한국\_이세훈 지부장



중국\_Sheng Wang



일본\_Toru Itani

31차 ICOH2015(International Congress of Occupational Health)가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Global Harmony for Occupational Health - Bridge the World”라는 주제로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다. 전세계 산업보건 전문가 3,000여명이 모여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는 훌륭한 만남의 장이 되었다.

그중 6월 3일에는 제25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 집담회를 갖게 되었다. 먼저 한국 대표인 이세훈 교수의 개회사 및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 중국 대표인 Prof. Wang, 그리고 일본 대표인 Dr. Itani의 축사가 이어졌다.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가운 인사와 ICOH2015 국제산업보건 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한 덕담을 나누었다.

Special session



1연제 좌장 조수현 지부장

Cho, Soohun



2연제 좌장 김준연 부회장과  
Dou Chang



경청하고 있는 황인담 지부장, 심운택 회장, 김준연 부회장, 조수현 지부장



이병국 교수 발표

The 25th Korea China Japan  
Joint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The 25th  
Korea  
China  
Japan  
Joint Conference  
Occupational Health

첫 번째 스페셜 세션에서는 3국의 산업보건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주제로 한국의 이병국 교수가 “작업장 납 노출 개입전략”을 발표했다. 순천향대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산업장 특성에 맞게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그 시기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시기(1988~1993년)는 납 노출근로자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노력, 즉 ZPP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과 호흡보호구의 소개 등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1994~1997년)는 납노출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된 보건관리시스템 도입과 혈중 납 농도 측정 및 공기 중 납 농도 측정, 공학적 관리가 도입된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1998~2012년)는 새로운 biomarker, X-ray fluorescence로 bone-lead 측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기이다. 이병국 교수는 2012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내부 연구 용역 과제로 「Portable XRF를 이용한 납사업장 작업환경관리와 이에 의한 납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효과」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중국의 Dr. Wang은 “중국 산업보건기준에 관

한 연구”에서 중국은 1956년에 처음으로 산업보건 기준을 제시하였고 1979년 111개 화학물질에 대한 최대허용농도(MAC)를 포함하여 120개의 산업보건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2000년 현재 중국의 직업병관리와 예방 및 산업보건 표준화 시스템에 관한 법에서 산업장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측정,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Prof. Higashi는 “산업보건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주제에서 기존의 산업보건 영역인 진폐, 중독, 발암성물질, 석면, 감염병, 근골격계질환을 넘어서 최근에는 정신보건, 스트레스관련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령근로자의 업무 적응이나 가정과 업무의 조화 그리고 업무의 구조변화로 인한 야간근로, 과로 등이 주목된다고 발표를 하였다.

점심시간에는 3국의 대표 및 간사들과 Steering Committee Meeting을 진행하였다. 내년 2016년 중일한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중국 북경에서 열릴 예정이며 중국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일본 홋카이도

Tea Break



개최 여부를 고려중이며 올해 10월 북경에서 간사미팅을 하며 workshop 및 심포지엄 주제와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논의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료종사자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일본 국립보건의료센터의 Dr. Wada가 “의료종사자의 근로여건개선: 일본의 과제”, 한국 한림대의 정윤경 교수가 “한국의료 종사자의 산업보건문제”, 중국 산업보건연구소의 Dr. Chang 이 “중

국 중환자실 간호사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제를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관하여 일본 산업의대의 Prof. Inoue 가 “일본에서 조직의 정의의 변화와 업무 몰입도-1년 후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직의 정의(organizational justice)에 대한 설문 문항개발

symposium I



심포지엄1 좌장 조성일 교수



정윤경 교수 발표

symposium II



심포지엄2 좌장 이강숙 교수



김형렬 교수 발표

및 1년 후 조사결과를 4군(stable high, favorable change, adverse change, stable low) 으로 나누어 2x2 표에 따른 효과를 발표하였으며 조직의 정의가 안정적으로 높은 군에서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흥미로운 발표를 하였다. 한국 가톨릭대의 김형렬 교수는 “교대근무 형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근로자에서의 수면과 신체 활동 변화”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발표는 인상적이었다.

폐회식에서는 2016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제 26차 중일한 산업보건학술집담회의 소개영상을 보여주며 내년에 건강하고 활기찬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끝을 맺었다. 저녁 만찬에서는 Finger-style로 유명한 기타리스트 정선호의 연주와 가라오케로 흥을 돋우며 친교를 다졌다. 🍷



**Banquet**



건배제의 \_공단 강성규 이사



이세훈 지부장의 열창



기념공연\_ 정선호 기타연주

심운택 회장의 인사말

